



해외

WORLD

# 미얀마 스님은 감옥투옥 中

## 휴먼라이츠, “2007년 반정부 시위로 수천명 감시당해”

미얀마 스님들이 미얀마 군사 정권의 탄압에 저항한 대가로 2년간 혹독한 감옥생활을 치르고 있다고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RW)가 보고했다.

HRW는 9월 22일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일어난 반정부시위로 240명의 스님들이 힘든 감옥 생활을 보냈으며, 수천 명의 스님들은 승복을 빼앗기고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2010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현재 반복되고 있는 시위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HRW는 “2007년 미얀마 정부의 스님들에 대한 체포와 폭력이 고조된 뒤 최소 31명의 민간인이 반정부시위대를 진압하는 보안군들에게 살해당했다”

고 보고했다. 미얀마 군정부는 지역 수도원에서 운영하던 사회, 복지, 보건 서비스 시설마저도 폐쇄하고 그들을 탄압·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RW의 보고에 따르면 많은 스님들이 2008년에 지역을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폐허가 된 지역에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억압으로 수도원을 떠나거나 해외로 피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당시 사이클론의 피해로 미얀마인 13만8000여 명이 죽었는데 스님들과는 달리 미얀마정부는 사이클론 피해에 안일한 반응을 보여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HRW 아시아 국장인 브래드 아담스는 “스님들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하지만 정부의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돼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HRW는 미얀마 정부가 고승들에게 선물과 수도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교를 정치적으로 도구로 악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의 억압과 폭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물품을 마련, 회향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세영 스님,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고두심 씨, 총무원 교역직 스님 및 종무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봉사활동자로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6년째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지원해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사장 변형운)의 진행아래 종로구 부암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9세대

# “십시일반 자비심 보태요”

## 아름다운동행, 이웃에 쌀·연탄 900세대에 전달

조계종과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추석을 맞아 주변이웃들의 먹거리와 난방걱정을 덜기 위한 자비행을 펼쳤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9월 25일 쌀 20kg들이 900포와 연탄 3만6000장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가구 900세대에 전달했다.

서울(조계사), 오산(대각사), 대전(고산사), 대구(동화사), 양산(통도사), 광주(원각사)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 행사는 그 동안 아름다운동행이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기부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물품을 마련, 회향하는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서울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사회부장 세영 스님,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고두심 씨, 총무원 교역직 스님 및 종무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봉사활동자로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6년째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지원해온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사장 변형운)의 진행아래 종로구 부암동 일대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9세대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지관 스님과 홍보대사 고두심씨가 연탄 전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에 각각 연탄 300장, 쌀 1포씩을 전달했다.

지관 스님은 연탄 배달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 “좁고 배고픈 겨울을 지내보아야 이웃의 고통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자”며 “이렇게 뜻 깊은 일에 동참해준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홍보대사 고두심씨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아름다운동행에 같이 ‘동행’해 매우 보람되고 뜻 깊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

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배 100원 모금 범위, 자비의 등 달기 등의 다양한 자비나눔운동을 전개해 9억4000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동안 모인 기금은 상반기에는 실직가정·다문화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치료비 및 생계비, 쌀, 학비 등으로 3억6000여 만원이 지원됐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글=이어나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 불교상례지도사 모집

## 불교생활의례문화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에서 ‘제2기 불교상례 전문지도사’ 과정을 모집한다.

불교상례전문지도사란 불교상·제례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상호, 수행단체에서 상가봉사와 불교장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워 상·제례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직종이다.

이번 지도사과정은 동국대불교문화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석·박사출신들이 중심이 돼 불교 상·제례이론과 실습, 공중보건, 상조문화와 외국장례, 자연장, 장례시설, 현장 견학 등을 진행한다.

문화원 관계자는 “불자들이 사용할 상용집이 없어 전문교육을 시켜 불교계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09년 7월 불교계 최초로 교육을 실시한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68명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故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교육기간은 10월 24일~2010년 3월 27일 6개월 과정 총 108시간이며 수강생들은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02)737-7277 이어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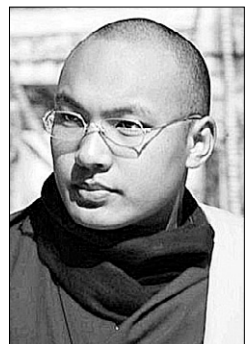
# “비디오게임은 감정조절법”

## 국제인권상 수상

### 달라이 라마 후계자 카르마파 밝혀

### 달라이 라마 공로 인정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로 지목된 17대 카르마파 우기엔 트린리 토르지 스님이 힌디어 악과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고 해 눈길을 끈다.



17대 카르마파 우기엔 트린리 토르지 스님.

오 게임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운드가 현대적인 힌디어 음악을 즐겨 듣는다. 카르마파 라마는 “나는 티베트 불교의 오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글로벌 시민이기도 하다”며 “힌디어는 21세기를 사는 내가 존재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르마파 라마는 자신이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맡을만한 상황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어나 기자

달라이 라마가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슬로바키아의 안란고시(Jan Langos) 국제인권상을 수상했다.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달라이 라마는 9월 9일 브라티슬라바의 한 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상을 중국과 티베트 간의 ‘상호 이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격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란고시 재단은 인류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노력한 공적자나 정치인, 또는 압제권력에 저항한 인사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헝가리 민주화에 힘쓴 아르파드 곤츠 전 헝가리 대통령이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상은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맞서 보여준 비폭력 투쟁과 인권신장에 힘쓴 공로로 수여한 것이다. 이어나 기자

# 공플란트·대각사 협력병원 조인

## 매월 신도 중 독거어르신 1인에 무료 틀니 시술

의료봉사자 자비나눔을 꾸준히 진행해온 공플란트 치과(원장 최우환)는 조계사와 협력병원 조인식을 가졌다.



대각사 주지 정산 스님과 공플란트 최우환 원장이 9월 19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가졌다.

최우환 원장은 9월 19일 서울 대각사에서 주지장산 스님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가졌다.

대각사는 매월 1명의 대각사 신도 중 무의탁 독거어르신을 선정해 공플란트치과로 추천하면 치과는 무료로 틀니를 시술하는 형태로 앞으로 매월 지속적으로 의료 봉사를 실천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많은 의료봉사를 제공할 것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포교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플란트는 조계사와 무의탁 독거어르신 1명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 2명을 매월 추천받아 무료로 치료와 틀니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로구청과 협력병원 제휴를 맺어 관내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에게 무료 틀니를 해오고 있다.

이어나 기자

# 김준배 거사 대통령 국민포장

## 노인의 날 맞아 노인복지 증진 공로 인정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김준배(85·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장·사진)거사가 대한노인회중앙회관에서 9월 25일 대통령 국민포장을 받았다.

김 거사는 지난 38년간 서울시 송파구내의 150여 개의 경로당을 관리하며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지역사회발전분야 △노인문화창달분야 △노인지도자양성분야 등에 큰 업적을 남긴 김 거사는 특히 장묘문화 개선사업 분야와 같은 각종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동시에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장 및 민주회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공로가 커 포장을 받았다.

노인복지 및 권익신장에 기여한

김준배 거사가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황적 으로 열악했던 불교계 언론사에 큰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다.

김 거사는 80년대 법등 스님이 조계사 주지일 당시 ‘광서당’이라는 인쇄소를 10여 년간 운영하며 불교신문 등을 저렴한 가격에 인쇄, 공급해 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힘썼다.

김준배 거사는 “더 잘하라는 뜻에서 주는 상인 것 같다.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자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어나 기자

## 개산 1516주년 기념

# 팔공산 동화사 개산대재

일시 2009년 10월 17일(토) 오전 10시  
장소 동화사 통일약사대불광장

**개산대재 (10월 17일)**

헌공다례	09:30 ~	부도전 ○ 대웅전
극달조사 영정이운식	10:10 ~	대웅전 ○ 봉서루 ○ 통일약사대불광장
개산법요식	11:00 ~	통일약사대불광장
보살계 수계식	14:00 ~	통일약사대불전
만등불사 점등	18:00 ~	통일약사대불광장

**7인고승초청대법회 (10월 10일~16일)**

“계·정·혜 삼학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10월 10일 ~ 16일 10:00 통일약사대불전

**문화행사 (10월 10일~17일)**

대구예술대학교 신재순 교수의 “다종이 인형과 함께하는 고승열전”  
10월 10일 ~ 동화사 성보박물관 기획 전시실 상설전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문의 053)982-0101 www.donghwasa.net